

교회목표

1. 천국일꾼 양성
2. 만민에게 전도
3. 빈약한자 구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18:1)

주강충원

발행인 : 이 종 윤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충원교회

서울 강남구 역삼동 665-1

전 화 : 552-8200 FAX: 552-2925

사서함 : 영동우체국 1896호

91년도 목회 지침 : 모범적인 교회 생활 지표 :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

안수집사 6명, 권사 50명 피택

소정의 교육 받은 후 정식 취임 예정

지난 9월 8일(주일) IV부 예배 후 본당에서 열린 공동의회 결과, 제7대 안수집사가 6명, 제35대 권사가 50명 선출됐음이 밝혀졌다.

이번 공동의회에서는 중·고등학교 세례교인 11,800명 중 3,064명이 투표에 참가하였다. 6명의 안수집사는 투표자 과반수의 지지를 얻음으로써 선출이 확정되었고, 50명의 권사는 종다수득점수에 의해 선출되었다.

이날 선출된 안수집사 부부와 권사는 성경연구원에서 실시하는 교육에 참가해야 한다. 이들은 이 교육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부름받은 청지기로서 헌신 봉사하는 일꾼으로 훈련받게 될 것이다.

*제7대 안수집사(나이순)

오석부, 오인근, 이장하, 박덕



양, 이계인, 장주석

*제35대 권사(가나다순)

권영옥, 구자남, 김영순, 김영애, 김복련, 김복식, 김인숙, 김현숙, 박복동, 박순옥, 박옥순, 박정구, 백숙자, 백영희, 변경희, 서화자, 석정자, 손홍숙, 송태영, 송희연, 신원택, 신정순, 심의숙, 안

은희, 안정희, 안 정, 양선자, 이

경호, 이득해, 이석정, 이영숙, 이

용옥, 오춘실, 오화자, 유호순, 윤

옥자, 윤정미, 윤희자, 장귀녀, 장

춘매, 정경희, 정숙영, 정정자, 조

향숙, 조혜순, 최이수, 최정순, 최

태옥, 홍순임, 황순정

■ 제7대 안수집사 교육

*강의시간 : 매주 목요일 오후 7시~8시 20분

년 도	월	일	강 의 재 목	강 사
91	10	17	개강예배	이 종 윤 목사
		24	교육안내	이 조 용 목사
		31	안수집사의 위치와 사명	윤 용 규 목사
	11	7	예배모범	신 표 군 목사
		14	장로교회 원리 (1)	최 원 근 목사
		21	장로교회 원리 (2)	최 원 근 목사
		28	목사와 집사	김 학 진 목사
		5	집사직과 교회 봉사	정 기 용 목사
	12	12	환아기도회	김 양 훈 목사
		19	12월조 해설 (1)	김 해 규 목사
92	1	26	12월조 해설 (2)	김 해 규 목사
		2	12월조 해설 (3)	김 해 규 목사
		9	집사의 정년 생활	홍 대 군 목사
		16	성령의 은사와 봉사	이 조 용 목사
	2	23	92년도 충원교회 사업계획	이 종 윤 목사
		30	환아기도회	최 원 근 목사
	3	13	공강예배	이 종 윤 목사
	2/14-3/26		교사준비	
	3	28	교회	당 회

■ 제35대 권사 교육

*강의시간 : 매 주 목요일 오후 7시~8시 20분

년 도	월	일	강 의 재 목	강 사
91	10	17	개강예배	이 종 윤 목사
		31	교육안내	이 조 용 목사
	11	14	교회와 집사의 위치	윤 용 규 목사
		28	환아기도회	한 경 소 목사
	12	5	구역에서의 권사의 역할	구 병 선 권도자
		19	예배모범	김 희 권 목사
92	1	26	12월조 해설 (1)	김 성 완 목사
		30	12월조 해설 (2)	김 성 완 목사
	2	13	정직, 정통의 방법	이 조 용 목사
			환아기도회	김 원 근 목사



믿음의 가족들에게 드리는 사랑의 편지

사랑하는 S집사님,

참으로 장하십니다. 불신 가정으로 출가하시어 그 쓸쓸한 시험을 이기시고 마침내 결혼 12년만에 남편과 온 가족을 전도해내신 집사님의 큰 승리를 진심으로 축하하며 감사할 따릅니다.

지난 주일 온 가족과 더불어 나란히 앉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그 모습도 아름다웠지만 예배 후 사랑하는 가족들이 함께 부족한 중과 더불어 기도할 때 집사님의 그 뜨거운 눈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 것 같았으며 하나님 보시기에도 귀하게 여겨지셨을 것입니다.

특히나 빙절 때면 구슬을 쫓아 젖생을 차려야 되는 만여노리로 서 그리스도인의 위치를 지킴이면서도 가정에 틈을 세워나갔다는 집사님의 신앙적 승리가 오늘의 영광을 가져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추석을 몇 일 앞두고 하나님 아낀 것을 하나님이라 섬기거나 예배하는 우(愚)를 범하는 성도가 우리 교회 안에 없기를 바랍니다. 우상이 아닌 살아 계신 하나님께만 최고의 예배를 드리되 가장 긴급하고 가장 중요하며 가장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리시어 하나님의 은혜로 온 가족을 복음화 하는 복을 받으신 집사님과 같은 바른 신앙의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 더욱 많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풍성한 은총이 오늘도 집사님의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9. 15

이 종 윤 목사

'91 장애인복음화대회

"장애인을 그리스도에게로!"

"장애인에 대한 전도, 봉사, 계몽"을 목표로 하고 있는 한국침례교단(이사장 이종윤 목사)은 "장애인을 그리스도에게로!"라는 주제를 아래 우리 교회의 후원을 위하여 우리 교회 본당에서 '91 장애인복음화대회를 개최한다.

한국침례교단은 전국인의 3~10퍼센트가 장애인이지만, 그들의 절대 다수가 복음을 듣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하여 육체적 아픔뿐 아니라, 영생의 기쁨도 맛보지 못한 채 살아 가고 있는 현실을 안타깝게 여기고, 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을 전하기 위하여 이 대회를 마련하였다. 또한 이 대회가 진행되는 동안

편박을 통하여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교회와 사회의 관심을 한층 고양시킬 수 있는 것이라는 기대도 가지고 있다.

이종윤 목사와 안병욱 교수(숭실대)를 주강사로 초빙하고 첫날 저녁에 있을 필알의 밤을 도화선으로 장애인지도자세미나, 선택강좌, 부흥집회, 경배와 찬양, 영화 상영 등의 순서를 마련하였다. 이번 대회는 주일로부터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는 명령을 받은 비장애인들에게는 복음 전도의 사명을 완수할 기회가 되고, 장애인들에게는 주님 안에서 영생을 맛보고 견고히 믿고 찬양하는 변화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기회가 될 것이다.

총회에 구제헌금 전달

지방 교회엔 수재의연품도

우리 교회는 지난 여름 폭우로 수해를 입은 수재민들을 돕기 위하여 비전2000운동 때부터 접수해오던 수재의연품 5,520점을 지난 9월 9일(월) 있었던 목회자세미나에 참가한 교역자들(156개 교회)에게 배부하였다. 이들

은 자신들이 시무하는 교회 주변의 수재를 당한 이웃들에게 우리 교회를 대신하여 전달할 것이다. 한편 총회직 차원에서 수재민 돕기 운동을 전개한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9월 10일(화) 총회에 구제헌금 전달원을 전달하였다.

야고보 사도는 위로부터 난 지혜가 가져 오는 화평을 좋아하는 사람은 의의 열매를 맺는다고 하였습니다. 성경의 다른 곳을 보면 의의 열매가 화평이라고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의로운 일을 함으로써 화평이 오는 경우도 있고, 화평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의의 열매가 맺어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1. 올바른 행위

화평케 하는 자들이란 화평을 만드는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화평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역사가는 4천년 역사 동안 전쟁이 없었던 해는 겨우 300년 정도밖에 안된다고 합니다. 특별히 20세기는 역사상 가장 전쟁이 많았던 세기입니다. 아마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인간의 다름은 계속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존질한 마음으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인간에게 노가 있고 폭력이 있는 한 화평은 우리에게 멀리 보이는 하나의 이상일 뿐입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알비트 까뮈는 20세기를 공포의 세기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서 화평케 하는 자가 되라는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고 공포의 세기에 살고 있다는 부끄러운 역사를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제7일

화평과 의의 열매

(약 3:18)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마5:9)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수동적으로 평강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평화의 길을 만드시는 분입니다(히13:20). 우리는 화평을 날마다 만드시는 하나님 앞에서 평화봉사단이 되어야 합니다(골5:1).

우리는 만들어진 화평을 잃지 않도록 보존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 방법의 하나로 모든 권세들에게 복종해야 합니다(골3:1).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평안의 배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는 힘써 지켜야 합니다(엡4:2).

우리는 화평을 증진하고 평화를 추구해야 합니다. “악을 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시34:14) 또한 화평의 일을 힘써야 합니다(골4:19) 덕을 세우도록 힘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화평이 없는 사람은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히12:14). 주님은 배맞으시면서도 그 고통을 감수하심으로 마지막까지 평화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2. 올바른 태도

화평을 심는 태도를 늘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마음의 태도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태도를 보실 것입니다. 바른 행동을 하듯이 바른 태도도 중요합니다. 마음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정중한 태도를 가지고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사람이 화평을 심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신실성이 결여되거나 미운 마음을 가지고 무엇을 한다고 한다면 화평을 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 때문에 화평이 깨지는 것이므로 화평의 열매를 따기 전에 화평을 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화평을 심지 못하면 의의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잠10:4, 15:1).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정중한 태도,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때를 놓치지 않고 화평을 심어야 합니다. 그 때를 놓치버리면 오히려 후일에 가서 더 이상 화합할 수 없는, 영원히 갈라서야 되는 지경에 이를까 무섭다는 말입니다.

3. 올바른 목적

화평이 바라는 목적은 의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의입니다. 우리는 항상 화평과 의의가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화평을 누린다고 해서 사탄과 화평을 누리면 큰일 납니다. 화평은 의의 산물이고, 의는 화평의 산물입니다. 의는 화평을 증진시키며 화평은 의를 증진시킵니다. 항상 화평과 의는 수레바퀴처럼 함께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골4:17)

비전2000 운동

새벽기도회 설교 ④



이 중 윤 목사

야고보서 강해

야고보 사도는 자기가 살고 있던 시대를 싸움과 다툼에 있는 시대로 진단했습니다.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날마다 싸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천사장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쌌”(계12:7) 천사장이 사탄의 상징인 용과 싸웁니다. 그러므로 하늘에서 이미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전쟁을 일으키지 않고 그냥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계17:14, 19:19).

1. 영적인 전쟁

우리는 헬과 육을 상대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을 하는 사람의 무기는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다툼이라는 말은 개인적인 상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서부터 일어나는 갈등은 결국은 내 마음을 상하게 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귀와 싸운다면 영광스러운 전쟁이었지만, 하나님의 행상대로 힘입은 형제들과 다투어야 된다면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경을 보니 이와같은 일은 빌립보교회나 고린도교회에도 있었던 아주 심각한 문제였습니다(골4:2; 고전1:11, 6:1; 고후12:20). 우리는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 전에 다툼이 우리 교회

제8일

다툼의 원인

(약 4:1)

안에 없는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을 돌아봐야 합니다.

2. 싸우는 정욕

월을 하다가 보면 서로 부딪히고 다투는 나와 마음을 상하게 됩니다. 본분에 의하면, 다툼은 지체 중에 싸우는 정욕 때문입니다. 즉 쾌락을 좇고 자기 중심적인 욕심 때문에 다툼이 생깁니다(눅8:14; 5:3:3; 벧후2:13). 하나님 제일주의로 사는 사람에게 다툼이 온다면 그것은 악마와 싸우는 일이지 자기나 이웃과 싸우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연합과 조화는 오직 하나님 말씀과 성령에 충절을 따를 때만 가능합니다. 하나님 제일주의로 사는 사람은 자기에 대한 관심보다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을 늘 갖습니다(골2:4).

정욕으로 좇는 것이라 고집한다는 말이요 자기 욕심을 끝까지 부르짖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행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벧전2:11) 욕심을 끝까지 고집하면 안됩니다. 고집은 계속되는 전쟁 상태입니다. 평화나 화평이 없다면 불행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평화를 깨치는 원인은 말과, 야심, 시기, 노함, 교만입니다. 우리 영혼에 깊이 박혀 있는 이 잘못된 요소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다툼이란 어떤 의미에서 매우 개인적입니다. 본분에 보면 지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국가, 사회, 가족, 개인을 다 포함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범한 죄를 책임질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게 들어와 있는 죄 때문에 화평을 잃어버리고 싸우는 정욕에 져가버리는 불행한 자가 되고만 것입니다. 즉 다툼의 원인은 외부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인 갈등과 개인적인 죄가 문제입니다. 다른 사람이 한 말을 잘 새기고 기도해주고 위로

해주어야 하는데, 들은 말을 역으로 공격하면 자기도 불행해지고 온 사회가 뒤죽박죽되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죄성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야기 한 것을 하나님에 되받아 치셨다면 우리 가운데 살아남은 자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가정의 평화와 왜 깨졌습니까. 결국 우리 속에 있는 죄 때문입니다. 이 죄가 그대로 살아나와가지고 결국은 자기도 실수해버리는 불행한 자리에 빠지게 됩니다.

정욕과 고집과 자기 중심적인 삶과 죄로 인해서 다툼과 싸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욕을 뿌리치 뽑아야 합니다. 내 마음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생기는 질투심과 행세를 사랑하지 못하고 야욕도 고집을 부리며 내가 제일이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우리 속에서 뽑아내려야 합니다. 죄로 인해서 야욕도 생기는 마음에 있고, 야욕에 잘 야망만 채우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다고 하는 그 자체가 큰 교만입니다. 내가 교만해서 하나님 앞에 다투고 있거나 않은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주님 앞에서 지금까지 다투고 싸우면서 정욕을 좇은 것이 잘못된 것인 줄 알고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평화를 누리려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21세기란 기원 2천년대를 말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다고 믿는 그 해를 기원 원년으로 하고 그 세기를 꾸려서 21세기가 오는 것이다.

헤겔은 "역사란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이 세계사에 주축이 된다."라고 하였다. 다시 말해서 주님이 역사상에 나타난 일은 우리로 하여금 21세기를 바라볼 수 있게 하는 희망을 갖게 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인간의 역사에 오셨다. 다 쓰러지고 망할 것 같아도 다시 일어나고 살아나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라는 말씀과 연관이 있다. 그래서 역사에는 생동감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미래를 향해서 품으신 뜻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는 것이 오늘을 가장 보람있게 사는 것이다.

1. 21세기는 태평양시대

21세기를 태평양시대라고 한다. 이는 역사가들의 결론이다. 제1차 세계대전 당시 프러시아의 역사가 오스완트 스펡글러는 제1차 세계대전 전에 이미 서구의 몰락을 생각했다. 이런 맥락에서 토인비는 시편에 적면한 서구 문명은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에 대해 관심을 가졌다. 또 캠브리지 대학의 제프리 바라클라는 "이미 대서양 시대는 가고 태평양 시대는 왔다."라고 선언했다.

●실업인선교회 특강●

21세기를 향한 한국 경제의 전망과 기독교인의 제물관

김 동 길 박사(전 연세대 부총장)

대서양시대 이전에는 지중해시대, 지중해시대 이전에는 에게해시대가 있었다. 강변문화가 스러지고 문명의 센터가 해양으로 옮겨와 해양문화가 형성되었다.

에게해의 중심을 차지하는 회람에서 해양문명이 일어났다. 회람의 여러 도시 국가들 가운데서도 문화적으로 가장 우세한 곳은 아테네였다. 오늘날도 서양의 모든 학문의 원천은 아테네이다. 그러나 펠로폰네소스전쟁으로 회람을 중심으로 한 문명권은 사라지게 되었다. 그러나 그 에센스는 에게해에서 지중해의 중심인 로마로 흘러갔다.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나오게 되었다. 로마제국은 훗날 다른 제국들의 모델이 될 만큼 위대한 시대를 창조하였다. 그러나 도덕적으로 타락한 로마는 동서로 양분되고 결국 서로마제국은 5세기에, 동로마제국은 15세기에 멸망하고 만났다. 이로 인해 15세기 중엽 문명의 중심은 더 이상 지중해에 머무르지 않고 거기서 대서양으로 넘어갔다.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대서양시대의 서막을 장식하고 남미대륙을 정복하지만 1558년 스페인의 무적함대가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에게 격침됨으로써, 새문개 해상

권을 장악한 영국이 새로운 중심부 역할을 했다. 이러한 시대의 변천 속에서도 빛은 계속 동방에서 서방으로 전해지면서 대서양시대의 리더십이 영국에서 미국으로 옮겨갔다. 미국 내에서도 동부에서 서부로 옮겨져 드디어 태평양시대가 열리게 된다.

2. 기독교인의 경제 생활

기독교는 부자생활을 위한 종교는 아니다. 축복을 받으려면 돈을 벌고 건강을 누린다는 것은 지속적인 종교에서나 볼 수 있는 것이다. "나를 따라 오려거든 네 십자가를 지고"라는 것이 기독교의 본질이다. 악인이 돈을 벌는 것을 보고 탄식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통해서 "하나님은 해를 선인과 악인에게 비추시고 비를 불의한 자와 의로운 자에게 나리우시니라"고 말씀하셨다. 이는 하나님의 의식인 것이다.

경제 문제가 심각하게 중요해진 것은 르네상스를 기점으로 부터이다. 그 이전의 중세 천년은 형제라는 관개만 있었고, 관심의 초점은 구원이었다. 그 당시에는 출생에서부터 성찰, 사망 등 인생의 모든 것이 교회와 관련된 생활이었다(영세, 건설세, 일종도유

식 등). 십일조는 일종의 세금이었고, 후사 없이 사망한 자의 유산은 교회가 상속하게 되어 교회는 막대한 재산을 소유하게 되었다. 이런 시대에 영국의 헨리 8세가 종교개혁을 단행한 것은 로마 카톨릭에 속해 있는 영국 땅을 신전세력들에게 주기 위함이었다. 간민은 천직이라 생각하고 자신 있게 믿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였다. 이처럼 자본주의란 하나님 나라 건설에 도움이 되자는 것이다.

부자는 축복을 받아 부유하거나 가난한 자는 저주를 받아 가난한 것이 아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악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는 성경의 가르침에 의하면 부자들은 오히려 부단을 느끼며 살아가야 한다. 즉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 돈을 쓰고 가난해져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신앙이다. 성경의 이디를 보아도 부자가 되라는 가르침은 없다. 가난을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거짓없는 정직한 삶이다. 믿는 사람들이 가운데서도 탈세를 하면서 그것을 전혀 부도덕한 것이 아니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 그

리나 예수님께서 "호리라고 남김 없이 갚기 전에는 길닫고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이다.

경제 문제가 어렵게 된 것은 사랑으로 다루지 않기 때문이다. 공산주의가 몰락한 것은 사랑의 마음 없이 평등이라는 이름 아래 경제 문제를 무자비하게 다루었기 때문이다.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포도원에 일꾼 들이는 비유를 보면서 경제 문제의 비결을 배워야 한다.

이제 열리는 태평양시대의 새로운 도력은 사랑으로 서로 함께 사는 운동이다. 하나님께서는 함께 사는 것을 원하시니 자유가 있는 곳에서 평등을 향해 함께 나아가야 한다. 가난한 사람이 이 세상에 남아 있는 한 부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다.

한반도의 통일에는 사랑을 가슴 속에 담은 기독교인의 작업으로 남아 있다. 하나님께서는 한반도에 자유와 평등이 동시에 존재하는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보라는 숙제를 내주셨다. 따라서 태평양시대에 우리가 이룩해야 하는 가장 위대한 사업의 하나는 함께 사는 세계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새로운 시대의 창조라는 꿈을 가지고 주님 앞에 자신을 바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자.

새 날 · 2

지난 9월 9일 시집출판감사예배를 드린 백원옥 군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심정으로 장애인과 불우한 이웃들을 위

해 사랑의 집이 하루 속히 완공되기를 바란다며 그 동안 시집 판매로 모은 백만원을 사랑의 집 건축헌금으로 드렸다.



백 원 옥 학생

주여
당신을 위하여
한 날을 택하소서
뜨겁게 타오르는 불길로
새 날을 비취소서
세상은 어두운 곳
어둠은
시간의 장막을 타고
너를 너울 춤추며
당신의 새 빛을 가립니다
당신을 거부하는 영혼들은
어두운 공간에 거하며
당신의 목소리를 거부하는
신은 소리로
이들의 노래를 부르고 있나이다
밤은 깊어 캄캄한 숲속에 어둠이 거하고
밤은 깊어 고독한 외침이 침묵에 잠기고
밤은 깊어 참 빛인 당신을 보지 못하고
깊은 잠으로 떨어진다
달콤하게 젖어든
꿈결 속에서
쾌락의 유희를 받아

금단의 열매를 따먹고 맙니다
태양이 뜨겁게 작렬하지만
새 빛이 아닙니다
말하들의 빛들은 반짝이지만
마음으로 기원하는 빛은 없습니다
수많은 날들을
찬란하게 비취는 광명이 있지만
그것이 새 날이 아닙니다

주여
당신을 위하여
새 날을 택하소서
어둠인 채로
한 밤을 비례제 하소서
어둠인 채로
세월을 잃지 말게 하소서
어둠인 채로
바어진 곳에 홀로 있게 하소서
어둠이어도 어둠을 깨닫지 못하고
새로운 빛들에
눈이 멀어져
두려움으로 덮고 있는 영혼들을

주여 젖으소서
죽음이 두려워
이들 간직에 잠여한 영혼들을
주여 만방히 여기소서
이들의 유희를 여기자 못하고
살을 잃어 버리는 저들을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당신은
참 빛을 소망하시어
심자가에 달리고 목숨이 끊이지
새 생명을 창조하셨나이다
당신이 흘리는 보혈로서
새 날을 이루었으니
새 삶에 빛을 만하게 하소서
눈부신
한 날의 새 빛으로
어둠을 몰아내고
빛 무너기에서 당신을 바라보게 하소서
사랑과 평화
이루는 새 날의 이슬로
찬란한 생명을 누리게 하소서

살림경로대학

자원봉사자 모집

지난 9월 12일 개강한 살림경로대학에서 학생들을 위하여 헌신한 봉사자들을 찾고 있다. 문예, 시예 등에 소질이 있는 성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

유치부

찬송가부르기대회

유치부(부장 장광호 장로 지도 김경자 전도사)는 9월 15일과 22일 찬송가부르기대회를 개최한다. 어린이들이 순수하고 밝은 심령으로 하나님께를 흠뻑하설 찬양을 부르는 자세를 심어주기 위해 마련된 것인데, 지정곡은 "만민이 내게 있으면", "감사할 이유", "예수의 매아리" 등 14곡이다.

■ 교육의 현장 - 탁아부

고사리손을 주님을 향해 모으고

갈릴리호와 베다니호의 중간에 자리잡은 베들레헴호의 문을 열고 들어서면, 가정집에 온 것 같은 푸근함을 느낄 수 있을 만큼 아늑하게 꾸미친 탁아부(부장 정운석 장로, 지도 유순화 전도사)가 그곳을 찾는 이들로 하여금 동심의 세계로 들어가게 한다.

탁아부를 찾고 있는 아기들은 매주 220명 내외.

탁아부 교사들은 예배 시작 전에 예배실로 가 아기를 맡기지 않은 부모들에게 탁아부로 아기를 보낼 것을 권면한다. 그러나 가정마다 한 두 자녀 갖기 캠페인으로 인하여 자식에 대한 애착심이 그 어느 시대보다 강하여 자기만큼 아기를 잘 돌보아주겠다는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는 부모들이 많다.

탁아부가 처음 신설되었을 때 만해도 국내에 모델을 제시할 만한 기관이나 단체가 없어서 시행착오를 겪기도 하였다. 즉 처음 얼마간은 아기들을 한 방에서 지내게 하였는데, 이렇게 되자 한 아기가 울면 옆에 있던 다른 아기들까지도 울게 되는 곤란한 지

경에 빠지기가 한두명이 아니었다. 그래서 교사들은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교회, 실정에 맞도록 인구한 건과 출생 12개월을 기준으로 분반하게 되었다. 12개월 미만의 아기들은 연세가 많은 교사들이 맡아 주로 우유를 먹이거나 잠을 재우는데, 이를 위하여 탁아부에는 작고 귀여운 침대들이 한 쪽 있을 차치하고 있다. 12개월 이상의 아기들은 젊은 교사들이 맡아 그림그리기, 만들기 등을 통하여 믿음으로 교육받고 있다. 교사들은 모세의 어머니가 신앙으로 모세를 가르쳤던 심정으로 아기들에게 바르게 앉아 고사리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자세부터 가르친다. 이 또래의 아기들은 같은 행동을 5분 이상 지속시키지 못하고 곧 실증을 낸다는 교육 전문가들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설교, 찬양, 비디오 상영 등 모든 프로그램을 5분 이상 계속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시하고 있다. 특히 공작 시간에는 아기들의 건강을 위하여 밀가루에 유해하지 않은 식용색소로 물들인 재료를 이용한다.

교사들은 부모들로부터 아기를 이 음식을 앞에 놓고 기도하기도 하고 교회에서 배운 찬송을 흥얼거리기도 한다는 얘기를 전해를 때는 부처 보람을 느낀다고 한다. 24개월이 지나면 영어로 등반시키는데, 맑고 순수한 영혼이 좋은 교사들로부터 좋은 신앙을 물려받은 탓으로 등반 후에도 다른 아기들과 비교해볼 때 기도로 잘하고 찬송도 잘 따라 부른다.

그러나 안타까운 점은 아직도 많은 부모들이 탁아부로 아기를 보내기를 꺼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교사가 자녀를 키워본 경험이 있는 집사나 권사들이어서, 책임감을 가지고 아기들을 보살피고 있으며, 바른 인격이 형성될 수 있도록 교육 환경에도 더욱 신경을 쓰고 있다. 뿐만 아니라, 낮가리는 아기들이 대부분이어서 담임제도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부모들은 안심하고 아기들을 탁아부에 맡겨서, 강건한 분위기 속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기를 바란다.

제4차 장애인을 위한 바자회 교구별 상품 확정

구제위원회(위원장 노광현 장로)는 지난 9월 11일(수) 교구장과 교역자가 참석한 가운데, 제4

차 장애인을 위한 바자회매 각 교구에서 담당할 상품과 식당 메뉴를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다. 각

교구에서는 지정된 상품외에 다른 품목을 취급하고자 할 때는 바자회 집행부로 신청해야 한다.

교구명	점포명	식 당 메뉴	농 수 산 물	상품종결정	점포장
1	개 성	과전, 튀김	포도, 사과, 배, 메론, 미나리		오상현
2	해 주	죽(호박, 팥, 잣)	복숭아, 귀리		김원신
3	사리원	만두류, 한국수	밤, 대추, 잣		조인재
4	황 주	차류(인삼, 커피, 생화)	식용유, 간장, 고추장	과박스류	최상균
5	진남포	비빔밥, 김치	야채류(무, 배추, 옥파, 단무, 감자)		김광남
6	평 양	감주, 식혜, 수정과	나물류, 더덕		장순용
7	선 현	빈대떡	머릿류		이 훈
8	신의주	빵, 떡, 빙과	감, 깨, 꿀, 화분		김천배
9	증강진	음료(콜라, 사이다, 주스)	감, 꿀, 수박		박영식
10	원 산	과자류, 사탕류	굴비		이명학
11	할 흥	냉면, 온면	고추, 마늘	미곡류, 약세사리	김은호
12	청 진	햄버거	젓갈류		김재명
13	회 령	오뎅, 우동	미역류		정광호
14	온 성	도시락, 민반찬	오징어, 멧치류		마성래
15	강 개	떡류, 떡볶기	민물		박관일
16	해산진	김밥, 잡채밥	햄소세지, 맛살, 참치		최무진
17	나 진	약과, 바발과자	수삼, 홍삼, 인삼	미곡류, 약세사리	박치민

중등2부 8일에 초청전도집회 가져

중등2부(부장 박영식 장로, 지도 안경소 목사)는 지난 9월 8일 갈릴리호에서 총동원 전도집회를 가졌다.

금년 5월부터 출석 인원 530명을 목표로 전개한 발원운동의 한 행사였던 총동원전도는 중등2부의 모든 교사와 학생들의 기도와 정성으로 준비되었다.



이날 150여명의 새로운 학생들이 와서 총 450여명이 갈릴리호

를 메웠다. 먼저 예배를 드린 후 찬양곡과 성가대의 환영 행사를 마치고 각 반별로 다리를 김한 신입생 환영 친교를 가졌다.

이로써 중등2부는 금년 1월 첫 주의 260여명 출석하던 것이 이날로 450여명에 이르게 되었다. 앞으로도 530명 출석을 목표로 계속 전도에 나설 것이라고 한다.

■ 전도회탐방

잠자는 자를 깨워 은혜에 동참

- 마리아전도회 제8지회 -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어 기도하라고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차등지 되든지 하라고 말씀하신다. 그렇지만 우리 주변에는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잠자는 성도들"을 깨워 하나님의 은혜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는 전도회가 있어 찾아보았다. 이는 다음아닌 마리아전도회 제8지회.

마리아전도회 제8지회(회장 이영애 집사)는 연초에 교회 요람을 통하여 8교구 내에 있는 마리아전도회 인명부에 해당하는 성도들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교구 식구 중 상당수의 성도가 마리아전도회의 잠정회원임이 드러났다. 그런데 원래회 등에 통상 모이는 인원은 몇몇에 불과하여, 이들을 먼저 전도회 활동에 참여시킬 수 있도록 하자는 결론을 내리고 지속적인 기도를 해온 결과 매달 신입회원이 증가하게 되어 전도회

가 부흥되는 기도 응답을 받았다. 이처럼 내실 있는 전도회로 변모해가는 마리아전도회 제8지회는 매달 회원들의 기도 제목을 적은 기도 카드를 나눠가진 후 한 달 동안 집중적으로 작기도를 해 나가고 있다.

이들은 구제를 통한 전도에도 관심을 갖고 대상자들을 물색하였는데, 교구내에서 찾는 것이 좋겠다는 주위 사람들의 권고를 받아들여 사랑부 학생을 돕기로 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찬양부르기, 등강배우기 등을 통하여 회원간에 교제를 돈독히 쌓아가고 있다.

회원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전도회가 크게 부흥되고 별다른 어려움 없이 지낼 수 있었음을 감사하면서, 앞으로 전도자의 사명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과 기도하는 심정으로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성경, 찬송 보내기 활발

베드로협의회는 중국에, 청년2부는 농어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르게 전하기 위해서는 성경과 찬송가를 필요로 하는 곳에 이에 따른 기원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중회의 가수를 가운데

성경, 찬송가 보내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 베드로전도회 협의회(회장 강봉수 집사)는 각 지회의 협조로 구입한 한글 판주 성경과 찬송가 합본 30권을 지난 9월 7일 중국

길림성 왕청현 교회에 인편을 통해 발송하였다. 이 교회는 길림성 인걸사에서 70리 떨어져 있는 인구 8만의 왕청현에 자리잡고 있다.

한편 청년2부(부장 강은원 장로, 지도 김정우 목사)는 68동기회 주회로 9월 8일부터 9월 29일까지 농어촌에 성경, 찬송가 보내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베드로전도회 제11지회 기도회 열어

베드로전도회 제11지회(회장 이인영 집사)는 지난 9월 13일과 14일 중원기도원에서 91년도 제2차 기도회를 가졌다. 장경철 목사를 강사로 모시고 진행된 이

기도회에서 회원들은 연약하고 부족한 심령을 기도와 말씀으로 재부흥하고 가정과 전도회와 교회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였다.

광야의 소리

- ◎ ... 성경연구원 개강하여 문을 넓게 열다. 좁은 문만 아시는 성도들이시여, 여기 복음의 넓은 문이 열려 있습니다.
- ◎ ... 파키스탄에 파송된 의료선교사들이 드디어 진료소를 시작하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 ◎ ... 금년에도 우수 성적 학생들에게 장학금 수여. 천국일꾼 되기 위한 거룩한 발걸음에 힘이 되소서.
- ◎ ... 충현지교회 네 곳에 교역자 파송하다. 성령행진의 계속을 이어가소서.